

신바람 복지 위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초거대 AI 활용 업무효율 높인다

전주시-전주지역자활센터, 협약 체결... 돌봄 부재 거동 불편 노인 병원 이동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제공

전주시가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병원 동행은 물론 귀가까지 함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시와 전주지역자활센터는 2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지역자활센터는 7월부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돌봄 부재 거동 불편 노인으로,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올 하반기 동행서비스 이용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전주시와 전주지역자활센터는 2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0% 이하)은 무료(3시간 이내)이며, 그 외 이용자의 경우 3시간 기준 4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향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자 및 1인 가구 외 거동 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간편 전화번호(1522-4470)를 통해 최소 2일 전에 사전 예약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도 가능하며, 병원 동행 시 교통비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은하 전주지역자활센터장은 "1인 가구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 돌봄 격차를 줄여나가 어르신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전북경찰청, 138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총 44건(178명)을 단속해 이 중 32건(138명)을 검찰에 넘기고, 6건(11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 26명(14.6%) △업무방해 및 폭력 7명(3.9%) 순이었다.

특히 이 중 노조 전임이나 발전기금 등 여러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을 훌쩍 넘는 금품을 갈취한 1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질적 행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갈취나 폭력 등 사회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단속 기간이 연장된만큼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전주교대 '맞손'

남부권 SOC 시설 확충 · 우범지역 해소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 운동장이 전주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로 개방된다.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2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 남부권 SOC시설 확충 및 우범지역 해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교육대학교 대운동장(트랙)을 학사일정 및 대관,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2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남부권 SOC시설 확충 및 우범지역 해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시민에게 상시 개방기로 했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주교육대학교 대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교육대학교에는 운동장과 마을간 경계의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스포츠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활동이 가능해진

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근 동서학동 등 전주 남부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공공시설인 전주교육대학교 운동장을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기 위해 전주교육대학교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왔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역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개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교대와의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 남부권 주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야간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공모사업 수요기관 선정

전주시가 특화된 AI행정 구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기업의 초거대 AI(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지원' 공모사업에 종합연계형 수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은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서비스를 선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플랫폼을 활용·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공공기업으로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와 KT, 바이비컴퍼니, 마음AI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첨단 초거대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업으로부터 공문서 원문 데이터와 초거대 인공지능의 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공문서

작성, 계획서 등)를 확장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활용 방법 등 단계별 교육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자동화(RPA)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업무처리자동화(RPA)시스템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시는 현재 각 부서에 시범 대상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2가지 업무를 선정 후 시범 운영하고, 올 연말 사업 종료 시 성과를 분석한 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라기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을 행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대민서비스를 혁신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도입

전주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협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위협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중 1차로 시청 민원실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35개 동 주민센터에 총 38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휴대용 보호장비가 보급되면 민원인의 위협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녹화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위협행위 발생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영상·음성 기록 장치인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에 앞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 곳곳 장맛비, 최대 67.8mm... 29일까지 계속 올 듯

전북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9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는 등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정체전선의 영향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선의 위치에 따라 전북지역에 추가로 더 많은 비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